

제8회 환황해 포럼 기초연설 (구상)

김진영

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
jinyoungkim@cni.re.kr

본 과제는 2022년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제8회 환황해 포럼 기초연설 구상 개요로서 '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'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, 환황해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CONTENTS

1. 환황해 포럼 개요
2. 기후변화의 심각성
3.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남의 제안

요약

- 충청도는 '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'이라는 주제로 2022년 8월 3일 ~ 5일(3일간) 제8회 환황해 포럼을 개최함
- 기초연설은 국·내외 협력을 통한 환황해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환황해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남의 제안은 다음과 같음
 - 첫째,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적 연대
 - 둘째, 해양환경측정망 구축과 정보 공유
 - 셋째,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의 협력적 추진

01

환황해 포럼 개요

- 2022년도 제8회 환황해 포럼 기조연설 개요는 아래와 같음
 - 발표행사 : 제8회 환황해 포럼 (대주제 : 해양을 중심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)
 - 행사일시 : 2022년 8월 3일(수)
 - 발표자 : 김태흠 도지사
 - 청 중 : 학계, 업계, 정치계 등 200여명
 - 발표주제 : 국·내외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
 - 발표시간 : 10분

- 기조연설이 답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해양 세션에 관한 우리 도의 현안과 역점과제 및 비전, 전략 등 제시
 -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안

- 기조연설의 키워드는 바다의 힘, 기후변화 대응,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, 지방정부의 역할로 요약됨

02

기후변화의 심각성

1.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이슈

- 2020년대 초반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였음
 - 폭염, 가뭄, 홍수,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이 최근 들어 전 지구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음
- 2007년, 운명의 날 시계(The Doomsday Clock)는 기후변화를 지구 종말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추가
- 2019년,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(climate emergency)를 선정
- 2021년,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‘글래스고 기후합의(Glasgow Climate Pact)’를 채택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천명
- UN은 2021년 ~ 2030년, 향후 10년을 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(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)”으로 선포

- ‘우리가 바라는 바다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과학’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바다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, 바다를 살려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
 - * 깨끗한 바다 - 오염문제의 해결
 - * 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바다 - 해양생태계보전
 - * 예측 가능한 바다 - 기상예보와 같은 해양예보의 정확화
 - * 안전한 바다
 - *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바다 - 식량문제의 해결
 - *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- 해양데이터 포털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투명성
 - * 영감을 주고 함께하는 바다 - 해양치유 및 레저관광

2. 바다의 위기, 지구의 위기

- 전 세계는 핵심 기후전략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음
 -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으로서,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25~30%를 흡수
 -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초과 열용량의 90% 이상을 바다가 흡수
 - 산소의 최소 50%를 만들어냄
- 전 세계적으로 기후 및 해양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,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
 - 인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해양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음
 - 지구 표면의 2/3를 차지하는 바다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이고, 지구의 위기
 - 해양환경,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
 - 바다의 건강을 회복하고,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

- 충청남도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을 극복한 경험이 있음
 - 당시 원유 1만 900톤이 유출되면서 막대한 해양 환경오염 발생
 -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해양환경 복원에 기여
 - ‘태안의 기적’ 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규모 환경재난을 극복하고 해양환경까지 복원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

-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 외에도 적조, 고수온, 저수온,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,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

03

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남의 제안

1.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

- 충남은 바다의 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
- 2021년 충남은 ‘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’ 으로 ‘UN 공공행정상(UN Public Service Award)’ 을 수상
- 충남의 갯벌은 “한국의 갯벌(Getbol, Korean Tidal Flats)” 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
- 국내 최대·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중
- 매년 세계인의 축제인 보령 머드축제 개최

2. 해양환경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남의 제안

- 황해의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
 -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 당시 정부-NGO-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황해를 둘러싼 한중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을 해야 함
 - 우리는 다시 한번 '태안의 기적' 을 일으켜야 함

- 해양환경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

- 해양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체(OR 동북아 해양환경 관리체계)를 제안함
 - 지방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 있음
 - 여러 나라가 함께 바다를 지키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협력체는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후 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고한 토대로 작동할 것임

- 첫째,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적 연대를 제안함
 - 황해는 지리적, 역사적, 문화적으로 우리 모두의 바다임
 - 황해는 한국,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고, 일본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음
 - 황해의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
 - 따라서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한-중-일 세 나라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과제임
 - 황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황해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국가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

- 둘째, 해양환경측정망 구축과 정보 공유를 촉구함

- 앞서 언급한 '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' 은 '깨끗한 바다' , '건강하고 회복력 강한 바다' 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
 - 해양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,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임
 - 이를 위해 황해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환경측정망 구축과 측정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
 - 데이터, 정보, 기술에 대한 개방과 공유가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바다를 만들 것임
- 셋째,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의 협력적 추진이 필요함
 - 해양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,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생
 - 해류에 따라 오염원이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기 때문
 - 어느 한 시점에만 발생하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,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다국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
- 충남은 바다의 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, 경제를 살리며 문화를 꽃피우는데 노력할 것임
- 충남의 도전에 한중일 지방정부도 동참할 것을 기대
- 바다를 통한 푸른 회복(Blue Recovery)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

참 고 자 료

UN 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(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)” 홈페이지. <https://www.oceandecade.org/>